

아나카-페미니즘(Anarcha-feminism)에 따른 disability/impairment 접근법의 운동론적가능성

생존학연구센터 : 무라카미 키요시村上 潔(번역자:안효숙)

■ 1 전제와 문제제기

◆ 장애인운동(론)내부에서의 「사회모델」을 둘러싼 대립

◇ disability중시

(Vic Finkelstein, Michael Oliver)

……대 사회적인(구체적인 요구를 실현시키는)전략을 중시하는 입장
× 【대립】

◇ impairment중시

(Jenny Morris)

……각각의 조건의 차이를 중시하는 페미니즘의 입장

【본 보고의 문제제기】

• 위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인가? 불가피한 것이라면 다른 견해는 불가능한가? 이 대립도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구체적으로 유효한 운동이란 어떠한 것인가?

• 페미니즘의 여러 타입이 각각 disability/impairment와의 관계성을 정리하고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.

【선행연구의 문제점】

• 위의 대립도식을 지양·상대화하는 것이나 책임주체를 둘러싼 논의에 수렴하여 현실의 운동으로서/운동에서 실제로 필요한 대안(Alternative)의 이정표를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.

■ 3 disability/impairment의 힘겨루기 외부에서

◇ 자유주의 페미니즘(Liberal feminism)

• 사회모델이 부분적으로 무효화된다(=개인모델).
• disability는 개인적자원에 따라 극복해야하는 것.
• impairment는 「자질·개성」으로 볼수 있다.

→차이를 「활용」하는(활용여부는 개인나름)

× 【대조적】

◇ 사회주의 페미니즘(Socialist feminism)

• disability에 대한 정책·제도변경의 요구,시스템변혁이 중심과제.

• impairment의 문제는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.

→차이가 제거된다(차이에 대한 케어/대응은 곤란해진다).

+ 【대안(Alternative)】

◇ 아나카 페미니즘(Anarcha-feminism)

• 개개인의 impairment를 기본축으로 한 지원의 조직(organize)

• disability에 따른 불이익에는 개인투쟁(개인모델이 아닌 공동 [지원체제] 단위로)으로 대처.

→차이로 부터 운동을 만듦(차이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됨)

* 자유주의 페미니즘(Liberal feminism)과 친화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행의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체제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.

* 복지국가적인 개량주의는 채용하지 않는다. 따라서 disability의 문제를 「사회적으로」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.

■ 2 논점의 재고——페미니즘의 다양성(어떤 페미니즘인가?)

◇ 자유주의 페미니즘(Liberal feminism)

……기회의 평등/능력주의에 따른 조건향상 【획득형】

◇ 사회주의 페미니즘(Socialist feminism)

……통일적인 제도개혁/사회적인 공간설정 【요구형】

- 주로 상정되는 「페미니즘」의 주체는 위의 2가지이다.
- 전자는 현행의 자본주의사회·국가체제의 친화성이 높으며 후자는 낮다.
- 후자는 과격한(drastic)한 사회변혁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현행의 시스템을 복지국가와 가깝게 수정해 가는(현 상태에 대응하는 개량주의적인)방향성을 가진다.
- 위의 2가지는 기본적으로 대립한다.
- 이에 덧붙여 주체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한가지 있다.

↓

◇ 아나카 페미니즘(Anarcha-feminism)

……당사자 직접투쟁/자주적,자율적인 공간운영 【구축형】

* 아나카 페미니즘(Anarcha-feminism) = Anarchist feminism :

직접 행동 주의/자주 관리 주의/비 계급 구조/풀뿌리적(grass-roots)/공동 단위의 운영/탄력적 네트워킹/마이너리티 존중/개성의 촉진/협동의 촉진

■ 4 아나카 페미니즘(Anarcha-feminism)의 접근법/방향성의 가능성과 한계

◆ 자유주의 페미니즘(Liberal feminism)×사회주의 페미니즘(Socialist feminism)라는 「대립」의 외부에 있는 선택지로서의 존재의의

——대안(Alternative)으로서 (그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입장으로서) 기능한다.

【가능성】

• 트랜스(trans)/퀴어(queer)의 존재에 가장 친화성이 높다.
→기존의 「여성」 장애인운동의 축을 확장한다.

• impairment/disability 각각을 (주어진 것으로 보지도 않고, 획일적으로 다루지도 않고) 개별적,구체적·자율적으로 정의하여 공유한다. 그 후에 운동과 지원공간·공유공간을 구축한다(운동방침에서 개별적인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.)

• 신체(+노동)의 자율적 관리라는 전제가 가장 완고하다.

• 일상적인 「Safer space」의 구축·운영의 기술이 활용된다.

【한계】

• 직접행동에 당사자가 참가하는 것(접근access)의 곤란성

• 인프라(infrastructure)로의 액세스 문제

——지역차(도시부 이외에서의 생활곤란)

• 인적자원(의 많고 적음·강약)에 의존한다.

——국가규모로서 일률적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.

■ 5 전망

• 국가규모·정권의 성격에 좌우되지 않는 글로벌한 운동거점의 설정은 가능하다.

——그러나 그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과제이다.

• 노동운동·반섹시즘운동과의 상호보완이 예상된다

——그러나 그를 위한 기존운동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.

★ 이상의 논점에서 아나카 페미니즘(Anarcha-feminism)에 따른

impairment/disability로의 접근법은 1)기존의 장애인운동, 2)

「사회모델」논의, 3) 「페미니스트장애학」에 대한 비판적인

존재기반으로서 유효하며 필요시 된다. 실천사례의 축적과 공유의 추진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.

◆ 文献

◇ Garland-Thomson, Rosemarie, 2002, "Integrating Disability, Transforming Feminist Theory," *NWSA Journal* 14(3): 1-32.

◇ Hewitt-White, Caitlin, 2004, "Notes towards an (anarchist? feminist?) critique of (anarchism? feminism?)," http://auto_sol.tao.ca/node/view/50

◇ Roseneil, Sasha ed., 2013, *Beyond Citizenship?: Femin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Belonging*, London: Palgrave Macmillan.

◇ 柴田啓文(시바타 히로후미), 2003, 「장애인운동과 페미니즘과의 만남 —— 「장애의 사회모델」을 둘러싸고」 『四日市大学論集』 15(2): 111-125.

◇ Tateiwa, Shinya, 2011, "On 'the Social Model'," *Ars Vivendi Journal* 1: 32-51(<http://www.ritsumeai-arsvi.org/contents/read/id/27>)